

## 서구출신 원어민 강사의 경험과 오리엔탈리즘: 전주 지역 원어민 강사를 중심으로

김지혜\*

본 연구는 전주지역 서구출신 원어민 강사를 대상으로 오늘날 ‘오리엔탈리즘’이 이들의 사고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다룬다. 이를 통해 동서양 교류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한 사이드(Said)의 ‘오리엔탈리즘’ 논의를 비판적·경험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기회를 갖고자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문제를 다룬다. 첫째, 이주 전 원어민 강사의 동양에 대한 인식, 둘째, 이주 후 한국에서의 경험이 가져온 인식의 변화, 셋째, 원어민 강사의 오리엔탈리즘 활용방식이다. 연구 결과는 오늘날 원어민 강사 역시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강사는 오리엔탈리즘을 명확히 인식하고 매 순간 실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오리엔탈리즘의 변화를 경험하고, 정체성 유지와 갈등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을 활용하기도 한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서구 주체의 사고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확고부동한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화 또는 약화되는 유연한 체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주요개념〉: 오리엔탈리즘, 서구인, 원어민 강사, 위치감각, 정체성의 정치, 구별짓기

---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 1. 들어가는 말

사이드(E.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동서양 문화의 교류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분석틀로 자리잡았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오랜 세월에 걸쳐 서구인들의 의식 속에 투영되어 온 동양에 대한 편견”으로 정의했고, “그것은 단순히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환상이 아니라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동양에 대한 담론이자 실천이며, 진리로 굳어진 하나의 조직적인 지식 체계이자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사이드 2004: 17-18)로 규정했다. 이러한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동서양의 교류, 혹은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되어 왔던 불평등한 관계 맺기가 어떻게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닌 ‘지식-담론’의 생산을 통해 정교하게 구축돼 왔는지를 가늠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탁월한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비서구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물과 연구자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불러왔다. 특히 인류학계에서는 연구지역의 문화를 재현함(representation)에 있어 인류학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사이드는 지식 체계와 식민지 권력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학 자체의 정체성과 정당성(legitimacy)을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Richardson 1990; Thomas 1991).

이러한 이론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의 초점은 사이드가 다루고 있는 자료의 편중성과 논리의 비일관성, 서술의 모호함 등에 대한 지적(Halliday 1993; Irwin 2007)에서부터 이론의 현실적합성 및 설명력에 초점을 둔 것까지 다양하다(Richardson 1990; Fox 1992; Halliday 1993; Sax 1998).

연구자 역시 동서양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사이트의 관점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과연 포스트 식민주의 시기,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사이트의 관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은 “일관성과 논리성을 갖춘 언설이자 문화적 헤게모니로서, 서양인의 우월한 위치(positional superiority)를 확인·강화하는 역할을 담당”(사이트 2004: 15-27)하고 있을까. 특히 일상에서 서구출신 외국인<sup>1)</sup>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실제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국에서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곧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서구출신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4년 9월 기준 국내 등록외국인 수는 약 110만 명이며 이 중 미국 출신은 약 2%, 캐나다 출신은 약 0.5%로, 분포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49%, 베트남 10%에 비해 그 수가 미미하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 10월호 참고).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서구출신 외국인이 비서구권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근로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을 학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부분 외국인에 대한 분석은 주로 ‘고용허가’나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유입된 미숙련 노동자가 경험하는 차별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들도 대개 ‘원어민 강사’의 활용방안 모색과 교육 효과 제고 등의 특정 관점에 국한되어 있다.

---

1) 본 연구에서 말하는 ‘서구출신 외국인’은 주로 북미주계 외국인(미국, 캐나다)과 영어권 유럽(영국)출신 외국인을 의미한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구출신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회화(E2)비자로 입국하여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된 분석대상을 북미주계 영어권 국가와 영국 출신으로 제한하였다. 2014년 외국인 입국자 2,349,693명 중 북미주계는 341,951명(미국 317,844명, 캐나다 24,207명), 유럽주계는 131,140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지역 외국인에 비해 우리와 자주, 쉽게 접촉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오늘날 많은 서구출신 외국인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회화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 대중적인 관심과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방송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이들은 이른바 ‘가난한’ 국가출신 외국인에 비해 쉽게 취업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느끼는 차별 및 배제의 경험과는 다른 경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오리엔탈리즘 내의 ‘주체’임과 동시에, 타자화의 대상인 ‘동양’에서 근로 계약상 ‘을’의 입장에 놓여 있는 복합적 상태에 놓여 있다. 서구 출신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시선은 복제된 오리엔탈리즘에 따른 동경과 열등감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 경제성장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이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양의 자기인식의 변화, 서구의 경제적 불황 등은 국내로 유입된 서구출신 외국인의 인식과 경험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변화된 국제관계와 행위자의 인식 변화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현재적 의미와 구체적 작동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연구자는 서구 출신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영어권 원어민 강사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주지역 원어민 강사 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엔탈리즘, 즉 동양과 한국에 대한 시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한국에서 오리엔탈리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이주 전과 이주 초기 서구출신 외국인의 오리엔탈리즘의 내용을 살펴본다(4장).

이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 및 동양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으며 오리엔탈리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본다(5장).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 요약 및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6장).

## 2. 서구출신 외국인과 오리엔탈리즘

학계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주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80년대 말 중국교포 유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유입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학계의 분석도 양적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한국 기업 중 해외투자기업의 현지 고용 인력을 들여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유입된 인력은 중국과 동남아 출신 노동자가 대다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이들은 불안정한 ‘단기연수생’의 신분으로 3D업종에서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임금체납이나 근로시간 미준수, 산업재해 등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쉽게 노출되어 왔다. 때문에 학계는 분석의 긴급성에 따라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2000년대 다문화열풍이 불면서 결혼이주자, 다문화가정 등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었다.<sup>2)</sup>

이렇듯 국내 거주 외국인 분포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특성으로 인해 학계에서 서구출신 외국인들을 ‘이주노동자’로 바라보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설동훈(2009: 63-64)은 국내 이주노동자 집단을 비자 종류 및 종사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2000년대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관련 논의의 흐름은 이해경(2014: 134-142)의 논문을 참조할 만하다.

이 중 ‘전문기술직 이주노동자’는 거의 대부분 ‘선진국’ 출신으로, 이들은 차별에 시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수적으로는 소수이나 권력의 열세가 아니므로 소수자로서의 이주노동자 논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서구출신 외국인들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왜 부족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렇다면 서구출신 외국인에 대한 분석은 어떠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는가? 첫째로 ‘영어교육자로서의 원어민 강사’에 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서구출신 외국인, 특히 북미권 외국인의 경우 관광통과(B2비자)를 제외하고 회화지도 목적의 E2 비자로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상 주로 교육학의 관점에서 원어민 강사의 자질과 교육활동 효과 및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권미분 2007, 2011; 윤유진 2008; 이종복·원은석 2010; 이종복·전영주·강경옥 2011; 민찬규·나경희·김진석 2013; 윤옥경·김병주 2014). 정은앵의 연구(2013)는 질적 연구를 통해 원어민 강사의 생활을 분석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강사의 근무실태를 파악하여 영어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 연구들에 반영된 공통된 관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구출신 외국인의 삶과 경험을 회화강사로서의 기능적 차원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이며, 영어교육과 원어민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다루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는 ‘오리엔탈리즘 실천 및 형성 주체’로 서구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서구인의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심사와 일치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서양의 관계 및 교류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오리엔탈리즘은 낯선 세계, 즉 이질적 문화에 대한 다른 세계의 구조화된 시각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이주주체의 정체성과 이주국에서의 삶의 태도 및 사회적 관계 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 역시 원어민 강사로 대표되는 서구출신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논의와 결부시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리엔탈리즘을 다룬 기존 국내 연구들은 개화기 당시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드의 관점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국내의 오리엔탈리즘 논의는 문헌에 나타난 서양인의 오리엔탈리즘과 조선인을 타자화하는 과정, 또는 조선인이 서양인과 서구문명을 인식한 방식 등에서 긍정 혹은 부정적 오리엔탈리즘을 확인하거나, 서양인의 시선을 통해 당시 조선 사회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이배용 2002; 조현범 2003; 송재용 2004; 이지은 2004; 정용화 2004; 김희영 2007; 김은영 2008; 김학준 2009a, 2009b, 2009c; 허동현 2011). 이들 논의는 사이드의 이론이 비단 중동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오리엔탈리즘의 내용이 꽤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임에는 틀림없지만, 서구인들과 그들이 형성한 오리엔탈리즘을 고정적 실체로 인식하는 등 ‘오리엔탈리즘’ 논의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심창섭·칼라 산토스의 논의(2011)는 최근 한국을 관광차 방문한 서구인의 여행기 속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서구인이 형성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 논의 역시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기존 오리엔탈리즘 연구와 관점 및 분석 방법의 유사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적 적용과 해석은 리처드슨(M. Richardson)과 섉스(W. Sax), 팩스(R. Fox), 홀리데이(F. Halliday) 등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사이드 이론의 유용함을 수용하면서도 이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sup>3)</sup>

가장 신랄한 사이드 비판 학자인 리처드슨은 오늘날 오리엔탈리즘 논의가 유럽인들의 피학적 성향과 죄의식 표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단언한다(1990: 16-17). 그는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는 사이드와 그의 지지자들 역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오리엔탈리즘 역시 허구적이라고 본다. 또한 그는 사이드가 주체와 객체간의 호혜성을 부정하여 저항 불가능한 객체를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간(time)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타자화 과정을 설명한 요하네스 파비안(Johannes Fabian)과 더불어 사이드를 “니체의 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니체가 주장한 주객의 변증법적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Richardson 1990: 18)고 설명한다. 리처드슨은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사고가 완전히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이 주체들을 통해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팍스(Fox 1992)는 ‘오리엔트’가 서구가 형성한 오리엔탈리즘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인도 간디의 독립운동을 통해 드러내면서 사이드 이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은 그들 내부에서만 생성·소비된 것이 아니라 오리엔트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현상들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는 지나치게 정형화된 사고 및 닫힌 체계로 오리엔탈리즘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팍스는 오리엔탈리즘으로 인해 오히려 서구에 대한 저항이 야기된 것과 같은 오리엔탈리즘의 “급작스러운 여행(rading trip)”의 결과들, 즉 오리엔탈리즘의 변형(transformation)과 그 영향 등이 사이드의 논의 내에서 다루이지 못했음을 지적한다(Fox 1992: 144). 팍스는 오리엔탈리즘이 서구의 문화적 지배를 인식하게 해 주는 확실한 이론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인들의

---

3) 이들 외에도 어윈(Irwin), 리크만(Ryckmans), 홀리데이(Halliday) 등은 사이드가 ‘오리엔트’라는 지역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지배와 제3세계의 문화적 저항 간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등의 이론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4)</sup>

이 밖에도 섉스(1998)는 인도 가르왈(Garhwal) 지역 연구를 통해 사이드가 고안한 ‘서구인(안정적 주체)-오리엔탈(부정적 타자)’의 도식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한다. 현지 조사 결과는 실제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이 정형화된 이미지와 시각으로 타자 혹은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홀리데이(1993)는 칼 만하임(K. Mannheim)의 논의를 빌어 모든 담론은 그 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성됨을 강조하면서, 사이드가 한 사회에 대한 외부자 시선의 왜곡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사회 내부에서 생성·유통되는 담론의 왜곡 문제를 중시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리엔탈리즘이 실제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주체의 사고와 경험을 결정하는 확고부동한 실체가 아니며 주체간의 상호작용과 경험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고 변형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사이드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오리엔탈리즘을 보다 유연한 체계로 인식하고 오리엔탈리즘이 서구 주체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행위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서구출신 외국인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분석적 가치를 성찰해 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

4) 파스(Fox)는 비서구인이 변형시킨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본 연구는 비서구 지역에 생활하는 서구인이 어떻게 오리엔탈리즘을 형성하고 변형시키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 3. 연구과정 및 연구대상

2014년 10월 현재 E2 회화지도 비자로 등록된 외국인의 수는 총 18,000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원어민 강사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교사 초청 프로그램(EPIK)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거나 지역 교육청이 직접 선발하는 경우가 있다.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Fulbright)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교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교사임용권이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학교차원에서 직접 공고를 내어 모집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주변 학원가에 추천을 받거나 교육청에 의뢰하는 등, 원어민 강사 인력풀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및 학원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원어민 강사는 일반적으로 학위증, 사진이 포함된 여권사본, 이력서, 사진, 대학교에서 봉인한 성적증명서, 범죄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교육청이나 원어민강사 전문 취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설학원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서류만으로도 취업이 이뤄지기도 한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원어민이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뒤, 교포출신 코디네이터와 상담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원어민은 반드시 E2 비자를 보유해야 하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2000년대 원어민 강사가 증가하면서 더불어 원어민 강사 관련 범죄 및 자격 논란이 점차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계약은 주로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상담 결과 개인별 경력과 능력에 따라 급료 협상이 가능하다. 선발된 원어민 강사는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 각 학교에 배치되는데, 학교에 지역 선택에서 원어민 개인의 희망을 다 반영하지는 못한다.

2014년 현재 전라북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는 총 255명으로, 그 중 지역교육청 소속이 166명, 고등학교는 60명, 체험

학습센터 근무자가 29명이다. 자율형 사립고에 근무 중인 원어민 강사 2명을 고려하면 총 257명의 원어민이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면서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이다.

연구자는 서구출신 외국인들을 연구하기 위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주 지역 원어민 강사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들과 친분을 형성하며 교류해 온 것을 고려하면 훨씬 긴 시간 동안 원어민 강사들을 만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들과 차츰 문화적 차이, 임금문제, 교육환경 등과 같은 이슈에서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이들의 사회문화적 경험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국내 거주 서구인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분석을 결심하게 되었다. ‘서구인’하면 ‘오리엔탈리즘’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었던 연구자에게 이들과의 교류 경험은 서구인과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연구대상은 같은 학교 원어민 강사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들의 지인을 소개받는 식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다른 학교의 원어민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만난 원어민 강사들은 주로 백인계였고 심층연구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니며 연구 대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를 시작으로 자연스레 그들의 지인들로 만남이 확장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백인계 강사를 소개 받게 되었던 것이다.<sup>5)</sup>

---

5) “영어 강사 구인 때 ‘백인만’, 인종차별 못 고친 한국사회”(2013년 12월 26일 경향신문), “한국 영어 학원, 흑인 강사 ‘인종’이유로 면접 취소”(2014년 11월 19일자 파이낸셜 뉴스), “서울 초등학교, 흑인이란 이유로 교사 채용 거절했다가”(2014년 11월 23일 중앙일보), “학원가도 색안경, 피부색에 가려진 그들의 진심”(2014년 4월 7일 경기일보) 등, 학원 및 교육기관에서 강사 채용 시 인종차별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통해 교육기관에서 백인계 강사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연구자가 만난 원어민 강사가 백인계에 국한된 이유도 이러한

〈표 1〉 심층면접 대상 원어민 강사

순번	이름	성별	연령	국적	체류기간	학력	출신지 내 계층	근무지	특이사항
1	A	여	50대 초반	캐나다	7년	석사	중하	전주시 고등학교	현재 귀국
2	B	여	30대 중반	캐나다	약 5년	학사	중	전주시 고등학교	캐나다인 남편과 함께 영어강사로 활동
3	C	여	26세	미국	1년	학사	중하	전주시 고등학교	2년 정도 단기 거주 예정
4	D	여	26세	미국	약 2년	석사	중	전주시 고등학교	현재 대학 근무, 모친 한국인
5	E	여	24세	미국	10개월	학사	상	전주시 고등학교	플브라이트 장학생
6	F	여	52세	미국	약 3년	학사	하	전주시 고등학교	현재 귀국
7	G	여	26세	미국	약 1년	석사	중	전주시 고등학교	현재 서울에서 강사 생활
8	H	여	31세	미국	약 3년	석사	중	전주시 고등학교	미국인 남편과 함께 영어강사로 활동
9	I	남	30대 초반	미국	약 5년	학사	하	전주시 고등학교	한국인과 결혼
10	J	남	27세	미국	약 1년	석사	중	김제시 중학교	현재 중국 거주

원어민 강사와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자주 가는 식당가에서 전북 지역 원어민 강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일회적인 만남인 경우도 있었고 일부와는 전자우편을 통해 연락을 나누면서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강사의 회화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이들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

현상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원어민 강사 중 흑인 강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난 10여 년간 비백인계(흑인, 재미교포 등) 원어민 강사가 채용된 적은 두 번뿐이었다(재미교포 남성, 흑인 여성). 그 중 재미교포 남성은 연구기간 전에 학교를 떠났고, 연구자의 조사 기간에 근무했던 흑인 강사(여)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휴가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연구를 시작한지 6년이 지나면서 이들 중에는 귀국하거나 국내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도 있다.

본 연구는 지난 6년간 만난 원어민 강사들 중, 지속적 관계를 형성한 10명의 원어민 강사와의 심층적 인터뷰 결과에 기초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만난 원어민 강사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활용하였다(<표 1> 참조).

#### 4. 서구출신 원어민 강사의 이주동기와 오리엔탈리즘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원어민 강사가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직면한 문제는 연구자가 사용하는 ‘오리엔트’라는 단어의 모호함에 있었다. 출신 계층과 연령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만난 원어민은 공통적으로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오리엔트’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일부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오리엔트’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묻기도 했으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냐’고 의미를 확인하기도 했다.

‘오리엔트’라는 말은 서구인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이들에게 ‘오리엔트’는 ‘오리엔트풍(oriental style)’의 이국적 문화 및 취향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주로 ‘쿵푸(kungfu), 마셜 아트(martial arts), 무란(Mulan), 소이 소스(soy source)’ 등과 같은 물건과 그것이 파생시키는 이미지로 구체화되어 있다.<sup>6)</sup> 또한 이들은 ‘동양’보

---

6) 강사 E만이 ‘오리엔트(orient)’가 ‘중동’을 포함하여 한·중·일과 동남아시아 국가도 상기시킨다고 했다. 또한 이 개념이 ‘politically incorrect term’ 혹은 인종차별주의와 비슷한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본어를 배우고 대학에서 일본학을 전공한 강사E의 배경이 ‘오리엔트’에 대한 다른 인식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으로 지역을 구분했고 ‘서구 사회’나 ‘서양’보다는 ‘내 나라’, 혹은 자신의 출신국가(미국, 캐나다)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동·서양’ 구분체계가 오늘날 서구인들에게 일상적 언어사용 과정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 준다.<sup>7)</sup>

또한 이들이 인식하는 ‘오리엔트’의 지리적 위치도 주목해 볼 만하다. 북미계 원주민인 이들은 ‘오리엔트’를 중동보다는 한·중·일과 동남아 지역과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다.<sup>8)</sup> 이는 ‘오리엔트’라는 개념의 다의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물론 일상적으로 ‘동양(ori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사고에 오리엔탈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 개념의 사용 빈도와 무관하게 해당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정형화되어 있다면 오리엔탈리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엔탈리즘’은 하나의 조직적 규율-훈련으로 18세기 이후부터 오랫동안 지식인 내부에서 생산되고 인용되면서 공고화된 진리담론으로(사이드 2004: 18-19),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서구주체를 상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적어도 오늘날 서구인의 ‘오리엔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논의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오리엔탈리즘’의 실제와 변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해 준다.

---

7) 공간과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권력과 결합된 지식 담론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이드 역시 서구에 의해 ‘오리엔트’로 통칭된 공간이 구성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역사적으로 ‘오리엔트’로 통칭되었던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서구에 의해 ‘동남아시아’나 ‘극동’과 같은 명칭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분화가 서구인의 ‘동·서양’ 분류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오늘날 그들이 일상에서 지역을 구분할 때 ‘오리엔트’와 ‘옥시덴트’라는 분류체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8) 사이드는 19세기 초엽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영국과 프랑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동양을 지배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과정에서 ‘오리엔트’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근동인 아랍지역에서 일본, 중국, 한국, 인도차이나까지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다(사이드 2004: 20).

〈사례 1〉 ‘정신적 가치’의 보고(寶庫)인 아시아

조사자: 왜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는지?

강사 I: 미국은 물질적 국가이다. 나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어린 나이에 독립해야 했다. 대학에 들어간 후 내 자신에 대해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은 너무 물질적이고 가족 가치(family value)가 없다. 미국 사회는 이혼율도 너무 높고, 섹스도 너무 생각 없이 이루어진다. 미국과 다른 사회, 전통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었다. (중략) 아시아인은 예외와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다. 반면 미국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원어민 강사 I>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심한 동기에는 이들이 당시 동양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 원어민 강사 중에는 자신의 나라에서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가치관 충돌 등을 이유로, 새롭고 낯선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떠나기를 결심한 사람도 있다. 이들이 아시아를 선택한 데에는 상당 부분 아시아에 대한 특정한 인식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서구 사회와는 매우 다른 문화적 특징, 특히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빠른 서구화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관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정신(spirit)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서구가 잃어버린 가치(정신적, 가족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게 추구되는 곳이 바로 아시아라는 인식은 이주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아시아를 선택하게 한 중요한 동인이다.

물론 서구가 과거에 얼마만큼 ‘정신적, 가족적 가치’를 추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사이드의 논의대로 동양을 끊임없이 타자화하면서 서구가 ‘지향하는 특성’으로 자신의 정체성 구성해왔던 것처럼, 어쩌면 이들이 인식하고 기억하는 서구의 전통 역시 구성된 것이거나 근거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리엔탈리즘 내부의 ‘이분법’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역시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강사들은 향수어린 시선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것’, 혹은 ‘잃어버렸다고 믿는 것’을 아시아에서 찾기를 희망한다.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한 원어민의 경우 이주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훨씬 강한 ‘서양-물질, 동양-정신’이라는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된 계기를 서구 문화의 물질화와 세속화, 그것에 대한 환멸과 불만으로 표현하는 면이 강하며 동양을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강사 생활을 해온 그들은 (미국에서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등의 차이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직업을 구하기가 쉽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미국적 문화’, ‘정신적인 문화’를 맞볼 수 있으면서도 직업면에서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를 여행해 본 강사 B는 이 지역이 자신이 가 본 가장 아름다운 곳, ‘영적인 곳(spiritual place)’이기는 하지만,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점,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일본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원어민 강사들이 이주 전부터 지니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내용에 정형화된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첫째, 아시아는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시아인은 대개 예의바르고 특히 서구인에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인은 영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권 외국인에 대한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인식과 더불어 ‘한국전쟁’과 ‘분단국’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갖는다. ‘김정일’, ‘김정은’은 이들에게 꽤 익숙한 이름이다. 일부 원어민 강사의 가족과 친구들이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말릴 정도로 현지에서는 한국의 정치상황을 불안하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용기’를 내서 한국행을 결정했다. 그들 역시 어느 정도 정치적 혼란과 위기 등에 대한 불안을 공유하고 있지만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해 한국 정세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아시아 문화의 독특함과 풍부한 일자리, 그리고 현지인의 친화적 태도 등은 아시아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인식’이었다. 이는 이주 준비를 위한 소극적 정보수집 태도로 이어진다.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새로운 문화를 접한다는 호기심에 무작정 떠난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 이유로 온 원어민 강사도 현지 적응을 위한 정보 수집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어민은 정보수집에 적극적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스스로 ‘도전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설명한다. 이들에게 ‘도전정신’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이며, 더불어 ‘상대주의’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매너이다. 특히 도전정신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태도이자 가치관으로서 아시아인과 자신, 즉 서구인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자신들은 삶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바탕으로 용기 있게 낯선 세계로 떠난 서구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원어민 강사는 영어회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전해주고 싶어 한다.

#### 〈사례 2〉 서구인의 정체성, 도전정신과 글로벌 마인드(global mind)

조사자: 아시아로 이주할 때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강사 A: 나는 어려서부터 도전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어차피 다른 나라로 갈 거라면 아주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아시아는 직업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강사 B: 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영어보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마인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 준다. 글로벌 마인드는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고 두

려움 없이 맞서는 것이다. 이곳에 올 때는 낯설과 두려움을 즐기자고 생각했다. 한국 학생은 이런 도전정신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지 문화나 전통을 비판하는 원어민 강사는 그들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낯선 환경과 이질적 문화에서 오는 불편함을 불평하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이는 다양하고 이국적인 경험의 기회가 되므로 마땅히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시아로 뭉뚱그려진 공간 속에서 별다른 특색 없이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의 사회’일 것이라 인식되던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 계기는 이주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한국이 직업 구하기가 쉽고 월급을 많이 주는 등, 경제적인 혜택이 클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관행 및 제도가 여전히 강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일본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점 때문에 한국이 비교우위에 놓인다.

### 〈사례 3〉 한국의 장점

강사 C: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모른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서양인한테 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다 비슷하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나 역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중·일은 거의 비슷한데, 생활비는 한국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무래도 공산주의 나라라서 불확실하다. 여행이 목적이라면 일본이 매력적이지만 살려면 경제적인 것이 중요하다.

강사 J: 형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은 문화가 흥미롭고 다양하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불안한 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가까워서 여행도 갈 수 있고 안전하다고 해서 오게 되었다.

이들에게 한국은 ‘이국적 문화 체험’과 함께 ‘안정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나라’이다. 아시아를 선택하는 데에 오리엔탈리즘이 영향을 미쳤

다면, 이후 구체적 이주 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현지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때의 구체적인 정보는 주로 자신들의 생활에서의 안정과 편익과 관련된 것으로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이들이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사이드가 언급한 19세기 이후 형성된 동양에 대한 이해 방식과 분명 유사한 점이 있다. 아시아를 ‘정신적, 공동체적 문화’로 규정하는 것은 고전적 오리엔탈리즘에 속한다. 부담 없이 이주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아시아에 대한 이해 방식, 즉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글로벌한 기준’으로 상정하는 면, 영어와 함께 자신들의 글로벌한 마인드를 공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가진 점 등이 사이드가 오랫동안 비판해 왔던 전형적 오리엔탈리즘과 맞닿아 있다. ‘이질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질성에 익숙해질 필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강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서구인에게 아시아는 과거처럼 미분화된 신비와 야만성이 공존하는 공간은 아니다. 이들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객관적 시각으로 아시아를 이해하고 있으며, 또 이해하려 노력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아시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양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왜곡되었다고만 보기 어렵다. 적어도 21세기 서구인이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이 과거에 비해 추상적이지 않다. 서구인의 모든 시선이 편견과 차별의 결과물이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동남아시아’라는 명칭의 등장 과정을 밝힌 에머슨(Emmerson)은 ‘동남아시아’라는 이름에 서구의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명칭이 실체를 담아내고 있는지, 혹은 식민지적인 지 등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Emmerson 1984). ‘동남아시아’는 오리엔탈리즘의 산물이지만 이미 현지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 분명

한 실체이다. 16세기 지리적 명칭으로 도입된 ‘아시아’ 역시 ‘야만’과 ‘문명’의 도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했던 수동적 존재였지만 이후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지형을 만들어 가는 주체이기도 하다.

위 사례들은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에 부분적인 변화가 생겼으며 보다 ‘객관적’인 정보가 첨부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팩스(Fox)의 논의대로 오리엔탈리즘이 현지인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작동하듯이, 서구인의 오리엔탈리즘에도 내용과 작용의 면에서 변화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오리엔탈리즘의 해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긴 시간을 통해 형성되어 온 ‘오리엔탈리즘’은 여전히 다른 지역과 낯선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인식의 근거가 되어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례들은 여전히 경험하지 않은 낯선 공간,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서구인의 정형화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동서양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양산해 내었던 이 시각이 21세기의 지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개별 행위자인 원어민 강사는 동양에 대한 인식의 틀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적용하는 지 등을 살펴보는 데 있다.

## 5. 오리엔탈리즘의 변형과 활용

### 1) 오리엔탈리즘의 변형

#### ①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발견과 오리엔탈리즘: 문화적 차이의 확인과 재구조화

한국에서의 생활은 원어민의 사고와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한국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영향 하에서 비슷한 생활양식을

공유하던 ‘아시아’라는 동질적 공간 내부에 변별 가능한 지식과 경험이 생겨난다.

특히 이들이 학교라는 장(場)에서 생활한다는 점은 다른 외국인보다 현지에 대한 다양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원어민 강사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 생활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통해 세 나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얻게 된다. 학생, 교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세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 꽤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이들은 동서양의 문화차이나 한·중·일 삼국의 역사와 정치 관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매우 효과적인 소재라고 이야기한다. ‘케이팝(K-pop)’이나 한국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에서부터 임진왜란, 독도분쟁, 센카쿠 열도분쟁, 동북공정 등 한·중·일의 복잡한 현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이 과정에서 원어민 강사는 종종 한국문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조군으로 서구문화나 가치관을 소개하면서 ‘평가자’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는다.

#### 〈사례 4〉 한국문화 평가자이자 서구문화 대표자로서의 원어민 강사

강사 B: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한국문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주제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케이팝(K-pop)같은 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나는 케이팝과 미국의 음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것이 한국의 자부심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기도 한다. 사실 나는 그것이 늘 궁금하고 한국인이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사 F: 수업시간에 가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내가 토론에 참여할 때는 균형을 잡아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데미 무어(Demi Moore)처럼 연상연하 커플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남학생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나는 동양에서는 나이 어린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가. 왜 반대는 안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고, 우리 문화에서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의 열등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동양인을 서양에 의해 교정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가정한다고 본다(사이드 2004: 84). 원어민 강사는 ‘서구인’이자 ‘강사’로서 ‘동양인’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주체이다. 사이드 논의를 적용하면 일반 서구인보다 원어민 강사는 훨씬 명확한 교정대상(동양인 학생)을 가진 셈이다.

수업을 통해 원어민 강사는 학생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각을 기늴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원어민 강사와 한국인의 생각 차이는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토론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주장은 학생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한국 학생’이나 ‘한국인’의 생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원어민 강사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인지하게 되면서도 결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는 조건과 함께 ‘교사’라는 정체성이 더해져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재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사례 5〉 한국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려는 원어민 강사

강사 D: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이 독도를 원한다면 차가운(냉정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득이 될 것이 없다. 내가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강사 F: 교사로서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수용하지 않는다. (중략) 처음에는 (일본과 중국과 관련된) 정치나 역사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기했지만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내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듯이 한국인도 그들의 역사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마

참가지다.

이렇듯 원어민 강사가 한국 문화의 평가와 해석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준은 ‘합리성’과 ‘객관성’이다. 때문에 한국인이 자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원어민 강사는 한국인이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은지를 살핀다. 수업의 마무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들은 ‘객관성’, ‘합리성’을 서구문화의 특성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가 원어민 강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원어민 강사는 단지 영어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객관적, 합리적 태도’를 키워주는 수업을 하고 싶어 한다.

〈사례 6〉 객관적·합리적 사고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는 원어민 강사

연구자: 어떤 영어 수업을 하고 싶은지?

강사 I: 나는 이곳에서 오래 살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일단 나는 학생들의 태도를 고쳐주고 싶다. 한국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두세 명씩 몰려다니며 떠든다. 혼자 있으면 뭔가가 두려운 듯이 그룹을 만든다. 이런 태도는 수업시간에도 보인다. (나와) 일대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부끄러워하며 말을 못하는데 여럿이 말을 하면 공격적이다. 미국은 모든 것이 개인 중심이다. (중략) 일본, 중국과의 역사 문제를 이야기 할 때도 지나치게 한국인 중심적이다. 그들은 종종 선을 넘는다.

사이드가 분석한 유럽인의 동양관에는 ‘모든 민족과 문화를 능가하는 것으로서의 유럽, 동양인의 후진성에 대한 유럽인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사이드 2004: 27). 특히 ‘모든’ 현상을 자율적이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면도 사이드가 지적하는 중요한 서구인의 특성이다.

원어민 강사는 자신의 위치를 우월하다고 인식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국인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신이 확고부동한 가치관, 즉 합리성

과 보편성에 근거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은 지극히 미국적인 사고방식인 경우가 많다.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 사생활을 규정하는 방식에서부터 역사 인식 방식이나 글쓰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상황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제들에 있어 이들은 대개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지위와 수업이라는 의사소통 형식은 보편자라는 가정에 기초한 서구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게 도와준다.

‘동서양 문화의 차이’가 수업 주제로 사용되면서 구체적이지 않았던 동서양 문화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확립되기도 한다. 수업은 학생뿐만 아니라 원어민 강사에게도 자신의 문화를 추상적·도식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낳는다. 지속적인 비교와 대조의 과정을 통해 정리된 서구 문화의 특성, 즉 합리성, 객관성, 개인주의 등은 문화 비교의 근거가 된다. 모호했던 서구문화의 특성이 수업을 통해 정리되며, 그 내용은 사이드가 말한 오리엔탈리즘의 도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sup>9)</sup>

한국이 이웃나라와 맺어온 역사적 관계에 대한 영어수업은 원어민 강사가 가진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의 도식이 드러나는 장(場)이다. 이들은 수업과정에서 한·중·일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파악하면서 한국인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많은 원어민 강사들은 수업을 시간을 통해서 한국인이 중국, 일본과 자신을 얼마나 구분 짓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부 강사는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강사는 한국인의 ‘지나친’ 문화적 자부심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어민 강사 I는 한국이 역사,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이 이상하다고

9)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뱌푸어, 크로머 등과 같은 20세기 영국 정치인들의 연설문 등을 분석한 뒤, 오리엔탈리즘에 나타난 동양인의 이미지를 ‘비합리적이며 열등하며(타락되었고), 유치하고, 이상하다’고 정리한다. 이에 반해 서양인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숙되고, 정상적’이다(사이드 2004: 83).



말한다. 미국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 반면, 한국인은 지나치게 중국·일본과 자신들의 문화를 구분 짓고자 하는 열망을 보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어민 강사 E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한국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놀라웠지만 지나치게 역사문제에 예민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원어민 강사 I는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인의 태도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신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못 ‘문제적’이다.

원어민 강사는 한국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토론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영어교육을 통해서도 한국과 서구의 문화 차이를 구조화하게 된다. 원어민 교사들 중에는 영어교육과 무관한 전공이거나 이주 전에는 교육 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한국 영어교육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식’ 영어교육을 파악하게 되는 부분이다. 한국식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학생의 불평과 불만, 한국인 영어교사의 시각을 통해 형성된다. 학교 내 영어교육과정 편성과 결정 과정에 원어민 강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국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 영어교육 전반과 학교 교육에 대해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그들은 한국식 영어교육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합리적’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한다. 이때 자신이 서구에서 받은 교육이 준거가 된다.

이들에게 영어교육의 핵심은 영어식 사고, 즉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익히는 데 있다. 한국 영어교육은 이러한 영어교육의 핵심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시와 평가 위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다. 사회가 상정한 영어교육의 목표가 비합리적이지만 아니라 과정 역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한국식 영어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에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 왜 한국에서 영어가 중요한지, 왜 많은 사람이 영어에 열성을 쏟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한국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덧붙여 ‘비합리적인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상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 〈사례 7〉 한국 영어교육 비판

연구자: 한국 영어교육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사 G: 완전히 미친 짓이라 생각한다. 이유는 … 학원에 있을 때 내 학생들 일부는 학원장들이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오직 1~2%의 한국 사람들만이 매일 직장이나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 물론 당신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갖고 있다면 나도 이해한다. 나도 직장을 얻기 위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왜 어떤 회사가 직원을 뽑기 위해 모두 영어시험을 보는지, 전체 경력에서 특히 영어 점수를 그렇게나 중시하는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익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나는 주변에 스페인계, 중국계 친구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어울리다가 그 나라 문화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게 되었다.

원어민 강사가 이처럼 한국을 발견하는 경험은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에 분명하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특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하면서 아시아 내에서 한국을 분리해서 인식하려는 노력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 〈사례 8〉 한국에 대한 파편적 지식과 오해

강사 D: 한국에 있으면서 사귀 친구들과 일본, 중국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세 나라를 여행하면서 나는 의외로 세 나라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문화 유적을 살펴보면서 중국은 붉은 색, 일본은 검정과 흰색, 한국은 흙색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각 나라의 전통적인 색깔이 그렇지 않나? 한국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전통색이 황색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강사 D의 주장처럼 한·중·일의 차이가 단순히 색으로 환원되어 설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색이 흙색 또는 황색이라는 근거는 희박하다. 분명한 것은 원어민 강사가 한국인의 역사관이나 문화에 대한 해석을 배우고 수용하면서 특정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근거가 불명확한 지식 또는 편견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을 토대로 원어민 강사는 자신만의 상(image)과 견해로 만들어진 한국을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 일부 한국인이 가진 주관적 인식을 편식하면서 나름의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그림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이 서구인의 사고에 자리매김한 데에는 학술적 영역에서 생산·관리·유통되었으며 각종 담론과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원어민 강사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정형화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원어민 강사는 수업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아시아로부터 한국을 구분 짓게 된다.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리라는 강한 믿음은 동양 내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변해간다. 원어민 강사는 수업에서 동서양 문화의 특성을 정리하고 대조하는 ‘객관적’ 시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자신도 이를 확인한다.

이러한 구분은 오리엔탈리즘의 극복이 아니라 또 다른 한국에 대한 추상적인 평가와 인식의 반복일 뿐이다. 아시아에서 발견된 한국을 마주한다는 것은 한국인에 의해 인식된 한국을 만난다는 것이며, 그러한 한국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인식이 시작된다는 것이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서양에 대한 인식이 구성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제기된 동양의 ‘타자화’, ‘객체화’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전보다 더 실질적인 경험체계를 형성하게 해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오리엔탈리즘의 변형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들의 사고에서 한국의 ‘타자성’이 온전히 사라졌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sup>10)</sup>

아시아로 치환된 한국이 새로운 특성들을 부여받게 되는 과정이 이들의 경험 속에 잘 드러나지만, 그 특성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 끊임없이 긍정되거나 부정된다. 또한 그 결과에 맞춰 한국인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비합리적’ 요소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의 특성과 구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이 곧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서구인’과 ‘교사’라는 위치에서 수업시간을 통해 기존의 오리엔탈리즘을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기회를 갖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준다.

## ② 한국에서의 ‘서구’ 발견과 오리엔탈리즘: 서구화에 대한 이중적 시선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기치 않은 ‘당황’을 낳는다. 이러한 ‘당황’은 그들의 인식에 나름의 정형화된 한국에 대한 인식, 즉 한국이 동양적 정체성을 지닌 나라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첫 번째 의외성은 한국이 다른 아시아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함을 지녔다는 점에 있다. 조금씩 다른 아시아 지역과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또 다시 마주하게 되는 놀라움은 바로 한국이 ‘의외로’ 서구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특별함은 주변국가와의 역사적 관계와 문화적 전통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즉, 한국의 특별함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서 도출된다.

---

10) 사이드가 다른 오리엔탈리스트들 중에는 직접 오리엔트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이드는 그러한 논의들이 기존의 ‘오리엔탈리즘’과의 차별성과 구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오리엔탈리즘’의 큰 틀, 즉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의 핵심인 ‘이국적인 타인의 이미지(image of the Other)’로 오리엔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여전히 기존의 오리엔탈리즘의 재생산에 기여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사이드 2004: 299-353).

대부분의 원어민 강사는 일상 속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서구화되어 있다는 점에 놀란다. 빠른 산업화 과정을 통해 일구어낸 성장에 대해 원어민 강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반면 그들이 기대했던 동양적 가치관이나 특성을 일상에서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민속촌이나 한옥마을을 방문하거나,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명절에 이르러서야 이른바 ‘동양적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점을 파악하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대개 한국인의 일상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사회만큼, 혹은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하게 흘러간다.

원어민 강사는 한국사회가 서구화되었다는 생각의 근거로 자신이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점을 자주 언급한다. 물질적 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품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훨씬 빠르게 사회가 변화한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문화적 면에서의 서구화는 제도와 사고의 합리성, 개방성 등으로 설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인식 및 시각과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는 정도, 또는 자신의 의견이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듯하다. 한국생활에서의 편리함, 긍정적 측면을 서구화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한국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태도와 대조된다.

#### 〈사례 9〉 서구화 정도로 구별되는 한중일

강사 E: 중국은 물질적으로는 서구화되어 있지만 아직 사람들의 의식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 학원 오너가 갑자기 아침 일찍 찾아와 수업 시간을 변경하자고 하는 일이 있었다. 파티를 자주 열어서 내 개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적도 있다. (중략) 공산주의 사회라는 점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일본은 여러 면에서 발달한 나라이지만 사람들이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속마음을 모르니 답답했다. 그곳에서 1년 넘게 있으면서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

한·중·일 3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있는 원어민 강사는 특히 한국

이 여러 면에서 두 나라에 비해 긍정적 의미의 서구화가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물질적인 면에서의 서구화와 함께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개방성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다. 원어민 강사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수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 호의적인 동료 교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개방적인 태도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요소이며 이는 곧 자신의 문화와의 유사성으로 인식된다.

한국 사회의 서구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근거로는 ‘영어사용 정도’가 있다. 원어민 강사는 한국 사회에서 영어에 대한 한국인의 열의와 관심, 그리고 실력에 놀란다. 생활이 학교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어만을 사용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며, 대학가와 시내 중심가에 서도 간단한 영어는 통용될 만큼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영어 학습에 열의를 보이는 한국인들에 대해 원어민 강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국식 영어교육 방식에는 비판적이지만 영어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과 관심에는 높은 평가를 한다. 이들은 영어사용은 수단이며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영어 학습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그 중 문법 위주의 교육과 영미권의 문화와 괴리된 영어 학습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다.

#### 〈사례 10〉 세계화 척도로서의 영어의 중요성

강사 C: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영어는 중요하다. 영어능력은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지원서에서도 중요한 기준이다.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는 영어가 중요하다. (중략) 학원에서는 점수만 중시하고 순위매기기를 강조하는데, 우리한테는 이 점이 상당히 이상하다. 여기 학교에서도 애들이 시험문제를 가져와서 묻는데 나도 전혀 풀 수 없는 문법문제인 경우가 많다.

원어민 강사 내부에서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은 보편적이다. 하지만 어떤 한국인 영어 선생님은 일부 원어민 강사가 성실하지 않은 수업을 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을 모두 한국식 영어교육이나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어민은 영어가 오늘날 매우 중요하며 한 사회의 영어 사용정도가 그 사회의 세계화 수준, 국제적 소통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각에 비춰보았을 때, 한국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긍정적인 서구화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서구화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아쉬움도 존재한다. 한국은 자신이 기대했던 동양의 정취가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주말에 한옥마을에서 외국인들에게 한옥마을을 설명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원어민 강사는 한옥마을이 특별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홍보하는 전주시가 외국인에게 내놓을 만한 전통적 콘텐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서구’의 발견은 한국에서 ‘한국적 전통’을 발견하는 일보다 훨씬 쉽다고 말한다. 전주 한옥마을은 진정한 의미의 한옥마을이 아니며 보다 ‘한국적인 전통’이 살아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지 않는다. 대부분의 원어민은 전주에서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한옥마을을 꼽으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함께 내놓는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보다 한국적인 것’은 추상적이다. 보다 많은 ‘전통체험’의 기회가 제공되는 공간, 체계적이고 풍부한 설명이 함께 하는 공간, 여유롭고 자유롭게 전통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전통 유지’는 ‘상품화된 전통’의 틀 안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체험 가능한 공간으로의 변모를 의미하는 듯하다. 경제활동을 하는 등 일상을 살면서도 현지인과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고 보기 어려운 원어민 강사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일상적인 비일상’이라는 모순을 내포한다. 일을 하고 사람들과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낯선 곳이다. 이들은 현지인과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외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원한다. 때문에 이들에게 ‘전통적 공간’과 ‘전통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 낯선 것과 익숙한 것 사이를 오가는 삶, 이방인으로서의 삶과 현지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추구하고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종종 ‘한국적인 공간’을 찾아가 ‘전통’을 마주하는 것이다. 낯선 경험은 그들의 삶을 비일상성, 즉 특별한 것으로 변하게 만든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상에서 안정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때때로 동양 문화의 특성인 ‘신비로운(mysterious)’, ‘이국적(exotic)’인 체험을 하는 것이다.

〈사례 11〉 서구의 발전 궤적을 따라오는 한국

강사 I: 빠른 시간 동안 이러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은 기적이다. 전쟁을 극복해 낸 것을 보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쉬움도 든다. 한국이 너무나 빠르게 전통 생활양식을 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일찍 했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우리는 전통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한국인은 아직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강사 I의 이야기는 서구화된 한국에 대한 원어민 강사의 생각을 잘 대변해 준다. 이들에게 서구는 이미 산업화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성찰의 단계로 이행한 상태이다. 서구의 전철을 밟고 있는 한국에게 그들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한다. 물질적 가치 이면에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생각은 서구처럼 치열한 문명과 과정을 경험한 뒤에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값진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빠른 서구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다.

이들이 말하는 서구의 역사가 ‘화려함과 성공’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해서 이들이 서구문명에 깊은 성찰과 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결국 서구가 걸어온 산업화의 부침(浮沈)을 성찰



할 수 있는 힘은 서구인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신이 겪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 많은 나라들을 묘한 자부심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이중성이 존재한다.

### ③ 한국과 ‘거리두기’: 원어민 교사의 위치감각

원어민 강사는 한국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된다. 한국에서의 삶은 낯선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분명하지 않던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서구출신 외국인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 과정은 한국인, 한국문화와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이뤄진다.

‘거리두기’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과의 교류, 적응에서 보이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원어민 강사의 소극적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원어민 강사는 자신이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어를 익히게 되면 수업시간에 학생이 사용하는 한국어에 반응하게 되어 학습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이들의 소극적 태도가 모두 설명될 수는 없다. 한국어를 익히지 않아도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오리엔탈리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거리두기’는 서구적 가치관이 합리적이라는 강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원어민 강사는 효과적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영미권 문화와 사고방식, 구체적으로 합리적, 논리적, 객관적 사고를 함께 익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수업시간에 서구 문화와 가치관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글로벌한 태도’, ‘용기’ 등으로 표현되는 가치관이 강조되면서 수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한국인의 가치관 및 삶의 방식에 일정한 거리두기가 이뤄지는 것이다.

원어민 교사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생의 발표에서 다루지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 역사에 대해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업시간에 다루지는 한·중·일의 복잡한 정치관계나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공방 등의 이슈에 대해 이들은 가급적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고자 노력한다. 교사로서 학생의 발표에 적절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문화에 대해 ‘주관적’ 판단과 선호를 지니고 있다는 강한 확신은 ‘거리두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입국 이후 짧은 시간 안에 현지에서 ‘교사’ 및 ‘강사’라는 지위를 획득하면서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 원어민 강사에 우호적인 한국인의 태도도 원어민이 굳이 자신들의 생활태도나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원인이다.

또한 이들은 현지 문화 ‘체험’과 현지인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현지에 ‘적응’하거나 ‘동화’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단기거주 강사뿐만 아니라 장기거주자 및 장기거주를 희망하는 원어민 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장기체류자의 경우 훨씬 더 ‘거리두기’의 양상이 강하다. 장기체류자는 자신이 한국에 머무는 이유를 한국 사람의 친절함에 두지만 그 친절함의 양면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친절함은 곧 불편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이다.

〈사례 12〉 한국인과의 교류에 소극적인 원어민 강사

조사자: 한국에 왔을 때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강사 A: 큰 어려움이 없었다. 입국하기 전에 학원에서 집을 빌려놓기로 했다. (중략) 학생들도 무척 예의바르고 한국인들도 친절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조사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강사 A: 나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한다. 한국어를 이해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하는 한국말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할 것이다. (한국에 온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나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

관광지에 가면 영어로 번역이 되고 통역 서비스도 있다. 학교에는 영어교사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조사자: 한국인 친구들은 많은지?

강사 A: 주로 학교 동료다. 영어 과외를 하는 학생들, 그들의 어머니들. 주로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하지만 주로 혼자 생활한다.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다.

조사자: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는 없나?

강사 A: 그리 많지 않다. 한국 사람은 매우 친절하지만 나는 내 사생활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분명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관계를 망치게 된다.

강사 I: 한국에 살기 위해 한국문화에 꼭 적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말은 적응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내 방 식대로 규칙을 지키며 살면 어디에서 살건 문제가 없다. 학교에서도 가급적 다른 사람들 신경은 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나 역시 그렇다. (중략) 앞으로 한국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한국 문화의 문 제점, 남의 생활에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문제나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 는 것들이 없어져야 할 것 같다.

원어민의 한국인, 혹은 한국문화와 ‘거리두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단기체류자에 비해 장기체류자들이 한국문화에 익숙해지거나 동화되어 가는 것을 더 불편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기체류자는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한국인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반면, 오래 머무는 원어민은 자신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강조한다. 즉, 서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생활 속에서 자주 강조된다.

이러한 현상은 부르디외(P. Bourdieu)가 고프만(E. Goffman)의 용어 ‘위치감각(a sense of one’s place)’을 빌어 실시한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혹은 ‘사회세계(social world)’에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실천해 가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개인은 객관적인 사회구조로부터 주어진 자원 배분과 더불어, 특정 상

황 속에서의 주관적 인식이라는 ‘이중의 사회구조화(double social structuration)’를 통해 사회세계를 인식한다(Bourdieu 1985: 727-728). 이 때 개인이 느끼는 위치감각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에 남아 있도록 하거나, 타인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Devine and Savage 2005: 14-15).

한국에서 원어민은 계급적 조건 이외에도 타인과 구별되는 명확한 조건을 하나 더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서구인’, ‘외국인’이라는 점이며 한국에서의 생활은 훨씬 더 자주 ‘서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한국에서 ‘서구동양’의 구분 체계가 발휘되는 경우는 더욱 많아지면서 이들의 ‘위치감각’은 보다 ‘서구인’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치감각에서 ‘서구인’으로서의 위치가 강조될수록 ‘한국인’ 학생 및 교사와의 거리두기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장기거주 강사의 경우,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크며 동시에 ‘거리두기’의 양상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문화를 더욱 더 ‘잘 파악’하게 되며 더불어 현지에서 갈등을 통해 나름의 한국 문화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놓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시선을 형성하게 해 준다. 한국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한국인에 대한 고마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과 서구인의 가치관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복잡 얽힌 시선을 만들어 낸다. 이는 단기거주 외국인들에 비해 훨씬 구체적 이면서도 실질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공고하다.

이들은 한국인과 문화에 대한 공고한 판단 기준을 통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있어야 하는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나름

의 인식을 형성한다. 한국이 문화 체험의 공간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터전이 되는 경향이 커지면서, 오히려 오래 머물기 위해 한국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면모를 보인다. ‘지나친’ 한국문화로의 적응은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며(한국어를 알아듣는 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서구문화의 미덕(개인주의)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또한 장기 체류자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머물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계 맺기를 더욱 강조하게 되면서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낀다.

## 2) 전략으로의 ‘오리엔탈리즘’ 활용

### ① 갈등대응 전략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

#### 〈사례 13〉 갈등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문화 차이 강조 1

강사 I: 한국인들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한국 학교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중략) 그릇된 자존심(false pride)나 그릇된 애국주의(false patriotism). 이런 것은 내가 싫어하는 한국인 성격이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존경심을 요구하는 것은 싫다. (중략) 한국인들은 좀 더 겸손해야 한다. 어떤 한국인이 소주를 마시면서 한국이 최고야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 라고 말한 적 있는데, 만약에 미국 바(bar)에서 어떤 미국인이 ‘미국이 넘버원이야’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입닥치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사람이 그런 식으로 떠벌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만하다고 따돌릴 것이다. 미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 누군가가 오만하게 떠벌이면 주변에서 그만하라고 말해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떠벌이면 다 같이 거들면서 떠벌인다. 아무도 그만하라고 제재를 못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하지만 이게 한국 문화이다.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원어민 강사의 오리엔탈리즘은 사이트의 설명보다는 복잡한 측면을 지닌다. 따라서 구체적 상호작용과 경험 속에서 오

리엔탈리즘이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지니는지, 이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인식이 일상에서 늘 일관된 틀로 작동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어민 강사들은 주로 학교에서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혼란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우선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가 경험하는 바는 근무조건, 연령, 성별, 인종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국내 원어민 강사는 연령이 많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백인이 아닐수록 한국 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국내 영어 교육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강사는 바로 ‘젊은 백인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다.<sup>11)</sup> 연구자가 만난 원어민 강사들은 모두 백인 혹은 백인계 혼혈로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도의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은 없었지만, 주변의 아프리카계 원어민 강사의 경험을 통해 한국 내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 속에서는 인종보다는 연령과 계층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더불어 한국에서의 생활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느냐의 문제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원어민 강사 A는 하층 노동자 계급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했다. A에게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 삶을 보장해 주는 곳이지만 나이 때문에 이곳에서 직업을 계속 구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학교는 가급적 젊은 연령대의 교사를 원한다. 학생 및 한국인 교사와의 의사소통 문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차이에서도 유발되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위해 A는 가급적 학교가

---

11) “외국인 강사 채용, 무엇이 문제인가(2014년 2월 18일자 일요신문)”는 외국인 강사 채용을 주선하는 업체인 ‘잡인코리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학원장들이 외국인 강사의 능력보다는 외모와 국적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예쁜 백인 여성’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는 편이다.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좁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어민 강사 I 역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 그는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뤘으며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 때문에 경제적 측면이 지역 선택과 학교, 학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한국 생활이 오래될수록 한국인과 문화에 불만이 많지만 한국에 터를 잡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한편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온 중층 이상의 계층성을 지닌 원어민 강사는 한국에서의 강사 경험을 좋은 인생경험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의 사례들은 원어민 강사가 일상에서 겪는 경험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인종, 교육수준, 연령, 본국에서의 사회적 지위 등의 요소에 따라 한국에서 이들의 갈등을 대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갈등의 원인을 ‘문화적 차이’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갈등은 실질적인 이해관계 문제와 더불어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어민 강사는 한국에서 경험한 갈등과 당혹스러움 등에 대해 나름의 비판적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한국문화와 서구문화의 ‘차이’에 대한 강한 믿음이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한국문화와 자신의 문화 간의 차이가 오해를 낳고 이것이 갈등을 유발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충돌로 보고 대응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르고 부드럽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 그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반드시 문화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많으며 개별적 성격 차이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도 있다. 갈등상황에서 ‘한국의 문화’를 규정하고 강조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을 문화적 차이로 환원시켜 갈등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는 근거로 삼았던 ‘한국문화’의 실체는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 혹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 상황 속에서 부가되기도 하며, 기존의 인식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평소 이들이 ‘개방적이고 친절하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특정 갈등 상황에서 ‘폐쇄적이고 인색한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문화 차이’가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 하는 기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명백히 자신이 저지른 실수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때는 ‘문화 차이’라는 설명체계가 부각되는 것이다. 원어민 강사 C는 학교와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다양한 수업방식을 활용하는 자신의 수업 방식을 허용하지 못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하지만 C의 한국인 동료 교사는 C가 수업에 늦거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1년 동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원어민 강사는 한국식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의견을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이들은 비판과 토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한국 문화 때문이며 이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은 전적으로 강사 고유의 영역이며 평가의 객관성만 확보된다면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 오히려 한국인 교사는 일부 원어민 강사가 지나치게 편하고 쉬운 방식으로 수업운영을 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 〈사례 14〉 갈등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문화 차이 강조 2

강사 A: 나는 교사로서 학교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다. (중략) 한국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어떤 제안을 하려면 먼저윗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에) 예의나 절차를 중



시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일일이 위에 설명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싫어서 이제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편이다. 미국에서는 나이나 지위가 낮다고 무조건 하고 싶은 것을 못하지는 않는다. 일단은 재계약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엔 캐나다에 돌아가게 된다면 완전히 은퇴를 하는 것이다. 좀 더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요구만 할 수 없다.

또한 갈등상황에서 원어민 강사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신분과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특성, 그리고 서구인, 단기적 방문자, 관광객 등의 복잡한 정체성을 적절히 활용해 가는 면을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인 개인의 정치·경제적 조건보다는 ‘서구인’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이 적극 발휘되기도 하며 민족이나 국가의 형태가 아닌 ‘서구’라는 추상적 공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착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한 ‘서구-비서구’의 구분, ‘동양-서양’의 구분이 갈등상황에서는 상당히 확실해 지기도 한다.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모호했던 이분법적 문화 구분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낯선 공간에서의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글로벌한 주체로서의 정체성, 객관적인 서구 주체로서의 정체성 등이 공존한다.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은 일상에서 일관되고 고정된 형태로 발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갈등상황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서구와 동양을 구분해 가며 갈등을 해소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갈등상황에서 원어민 강사는 서구와 한국을 구분한다. 그 구분은 단순히 우월과 열등의 구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서구의 것이 합리적이며 보편적이라는 인식은 그대로 답습된다. 원어민 강사의 초국적 경험과 오리엔탈리즘이 결합하여 부정과 긍정이 모순적으로 혼합된 복합적 오리엔탈리즘이 발휘된다. 또한 서양적인 것과 다른 ‘한국문화’는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불편함을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오리엔탈리즘은 원어민 강사의 적응, 갈등형성, 갈등해소 등에 모두 관여하는 핵심적 기제이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한 서구출신 이주 주체가 서구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과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충돌할 때, 이주국에서 갈등상황에 놓일 때, 낮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될 때, 오리엔탈리즘은 전략적으로 주체에 의해 활용된다.

## ② 부정적 사회인식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

### 〈사례 15〉 원어민 강사의 부정적 사회인식에 대한 시각 진술

강사 F: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 곳 생활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냥 간섭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또 그들은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예외가 되고 싶어 한다. 이 경험을 통해 커리어를 계속 쌓아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도 드물다. (중략) 내가 아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6~7년 동안 여기 살면서 매일 똑같은 생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중략)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점점 학원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지는 것 같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이력을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어민 강사를 뽑을 때 혈액검사까지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말이다.

원어민 강사들은 한국 사회에 원어민 강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이는 국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제3세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인식이나 대우에 맞서 상담소를 이용하거나 결사체 및 네트워크 등을 형성하여 대응하는 모습(유명기 1995; 한건수 2003)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적극적인 대응보다 원어민 강사들은 부정적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원어민 강사를 비난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철저히 구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탈 원어민 강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원어민

강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화되는 것을 비판한다. 성급한 일반화는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을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경험한 개별 한국인은 한국문화의 전형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인이 자신을 평가할 때는 서구문화의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이중적 태도가 보인다. 또한 원어민 강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에는 한국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원어민 강사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원어민 강사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비합리적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부정적 담론에 대한 소극적 대응 태도는 한국사회에서의 이들의 위치 및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억압받거나 위협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미치는 제약이나 어려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서구인’, 혹은 ‘원어민 강사’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대신 연령, 학력, 체류 목적, 기간, 출신지에서의 정치·경제적 지위 등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나쁜’ 원어민 강사들과 자신을 구별짓는 방식을 취한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 오래 체류한 사람은 단기체류 외국인 강사를, 단기체류 강사는 오래 머무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장기체류 강사는 단기체류 강사를 ‘뜨내기’로 폄하하며 원어민 강사가 연루된 각종 범죄의 주체가 그들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단기체류 강사는 장기체류 강사를 ‘인생 실패자(loser)’로 보기도 한다. 이들에게 장기체류 강사는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며, 영어 이외의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 없이 남의 나라에서 쉽게 돈을 벌며 사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사고’를 치는 부류는 이들이라고 생각

한다. 이러한 구별짓기는 원어민 강사 내부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체류할 것인가가 내부 그룹을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한국인과 갈등을 빚을 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서구인’, 혹은 ‘서구’에 귀결시키는 전략적 면모를 보이지만, 한국 내 원어민 강사에 대한 부정적 담론에 대응할 때에는 한국 내 원어민 강사 집단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서구, 서구문화 등으로 묶이는 집합적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정치·경제적 조건이 강조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한국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이 강화되거나 약화되어 활용되듯이, 이들 역시 서구인이라는 집합적인 정체성과 개별적인 정체성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해 간다. ‘동-서양’이라는 이분법적 체계가 유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맺음말: 이론적 함의와 한계

유럽인이나 미국인은 먼저 유럽인이나 미국인으로서 동양과 직면하며, 그 뒤에 하나의 개인으로서 동양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럽인이나 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활동성 없는 실체가 아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그 사실이 의미해 온 것은 설령 막연하다고 하여도 자신이 동양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관계를 갖는 강대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각인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거의 호머시대 이래 동양에 대해 명확한 관여의 역사를 담당한 지역에 속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각인 것이다(사이드 2004: 34).

사이드의 논의는 서구 주체가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과연 서구인이 명확히 오리엔탈리즘을 인식하고 매 순간과 상황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경험적 차원의 분석을 요구한다. 본 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여 서구인이 어떠한 오리엔탈리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구출신 원어민 강사들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되었지만, 이주 결정 과정에 정형화된 동양의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들의 인식이 사이드가 언급한 오리엔탈리즘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서양의 교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들이 과거의 이분법적 동서양 구분 체계를 그대로 내면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들이 동양, 혹은 아시아인과 대별되는 ‘서구인’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지닌 채 생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동양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거나 구체화시킨다. 원어민은 한국인 교사, 학생, 다른 원어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질적이었던 공간에서 한국만의 특성과 함께 서구적 요소도 발견해 나가면서 한정적이었던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낯선 대상과 공간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 쌓이면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인식 변화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실질적으로 형성, 유지, 변형,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사이드의 설명보다는 꽤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는 일상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일관적으로 발휘하며 생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사, 서구인, 외국인’ 등의 복합적 지위와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오리엔탈리즘을 상황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나아가 원어민 강사가 가진 다양한 지위와 복합적 정체성이 상호 영향을 주며 오리엔탈리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그들이 강조하는 ‘서구 =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도식은 교사라는 지위와 서양인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평소에는 강하지 않던 오리엔탈리즘이 한국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 속에서 강조 및 강화되기도 한다. 원어민 강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두면서 오리엔탈리즘이 내포하는 이분법적 문화 도식 체계를 활용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 한다. 이들의 사고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작동하거나 활용된다.

따라서 원어민 강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기존의 동양 및 한국에 대한 정형화된 틀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 단지 그 틀 속에서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변화시킬 뿐이다. 자신이 지닌 복합적 정체성 중,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고용 및 계약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노동자’가 아니라 ‘서구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개인적인 잘못이나 성향의 차이에서 야기된 갈등과 오해, 이해관계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문제를 ‘문화의 차이’로 해석하고 자신을 ‘서구인’의 대표자로 상정하는 모습은 이들이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동서양의 권력의 표지로 이해했다. 오리엔탈리즘은 허위와 신화로 구성된 내용이 아니라 서양인의 의식 속에 반영된 공고한 틀로서 엄존하는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 즉, 오리엔탈리즘이 획득한 문화적 헤게모니는 오리엔탈리즘에 지속성과 힘을 부여하며 존재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틀 안에서는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서구인 행위자를 상정하기는 무척 어려워 보인다. 오리엔탈리즘의 의미를 오랜 시간 동안 서구 지식인 사이에 존재하던 관념의 일부 정도로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오리엔탈리즘이 오늘날까지 서구인의 사고와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오리엔탈리즘이 행위자들의 사고와 행위를 압도하거나, 행위자들이 오리엔탈리즘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연구자는 이들의 오리엔탈리즘이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표출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유지와 적응과 갈등 해결 등을 위해 오리엔탈리즘을 적절히 활용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불안정한 삶 속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전(全)지구화된 경제체제는 이들의 국제이동을 추동했고 이들 역시 큰 틀에서 국제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며,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대상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상황을 해석하고 또 재해석해야 하는 수고를 기울여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드의 논의를 도식적으로 이해는 데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기존의 오리엔탈리즘 연구가 완결된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오리엔탈리즘적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행위자의 인식과 경험 속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과 그것의 작동 방식을 살피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이론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원어민 강사의 오리엔탈리즘 실천과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의 변수를 밀도 있게 다루지 않았으며, 계층적 변수 역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보완을 위해서는 향후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이 서구주체의 오리엔탈리즘 내용과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면밀히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본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원어민 강사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드러난 오리엔탈리즘과 권력 관계 생산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권미분

- 2007 “대학 원어민 영어 강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영어학』 7(3): 411-438.
- 2011 “관광영어 수업에 있어서 원어민 교수의 자질과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3(1): 591-607.

### 김은영

- 2008 “서양인이 읽은 조선-조불조약 체결(1886) 전 프랑스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99: 201-237.

### 김학준

- 2009a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1회): 개항 이전의 시기,” 『한국정치연구』 18(1): 259-320.
- 2009b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2회): 개항으로부터 청일전쟁 발발 직전까지,” 『한국정치연구』 18(2): 247-294.
- 2009c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3회): 청일전쟁 발발 직전으로부터 조선의 망국까지의 시기,” 『한국정치연구』 18(3): 227-294.

### 김희영

- 2007 “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 말 서양인의 조선 인식: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6: 165-181.

### 민찬규·나경희·김진석

- 2013 “중등 영어교사 양성기관의 원어민 강사 활용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영어영문학연구』, 55(4): 133-160.



사이드, 에드워드

2004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교보문고.

설동훈

2009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사립』 34: 53-77.

송재용

2004 “구한말 서양인이 본 한국 의례 일고찰,” 『동양학』 36: 45-74.

심창섭·칼라 산토스

2011 “미국인의 한국여행기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관광연구논총』 23(2): 23-40.

유명기

1995 “제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회』 27: 145-181.

윤옥경·김병주

2014 “원어민강사의 직무환경만족도와 한국사회 적응정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31(1): 293-315.

윤유진

2008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 영어원어민 강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배용

2002 “개화기 서양인 저술에 나타난 한국여성에 대한 인식,” 『한국사상사학』 19: 539-569.

이종복·원은석

2010 “교직스트레스와 교직만족도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원어민강사 관리 방법 제안,” 『현대영어영문학』 54(1): 193-217.

이종복·전영주·강영옥

2011 “원어민영어교사 관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55(4): 203-234.

이지은

2004 “주체와 타자의 담론: 근세사 300년(1653~1919) 속에서 한국을 바라본 유럽인의 시각과 한국에 관한 사유형태로서의 “한국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독일문학』 90: 292-310.

이혜경

2014 “국제이주·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1): 129-161.

정용화

2004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형성과 오리엔탈리즘,” 『정치사상연구』 10(1): 33-54.

정은영

201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근무실태에 관한 질적 연구,” 『지방교육경영』 17(2): 29-52.

조현범

2003 “선교사와 오리엔탈리즘: 일제시대 어느 천주교 선교사의 조선 스케치,” 『정신문화연구』 26(3): 155-184.

한건수

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9(2): 157-193.

허동현

2011 “근·현대 서양인들의 한국관,” 『국제한국학연구』 5: 1-21.

Bourdieu, Pierre

1985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 *Theory and Society* 14(6): 723-744.

Devine, Fiona and Mike Savage

2005 “The Cultural Turn, Sociology and Class Analysis,” in Devine, Savage, Scott, and Crompton, eds., *Rethinking Class: Culture, Identities and Lifestyl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ress, pp. 1-23.

Emmerson, Donald K.

- 1984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5(1): 1-21.
- Fox, Richard G.  
1992 “East of Said,” in M. Spinkler, ed., *Edward Said: A Critical Reader*. Oxford: Blackwell Publishers, pp. 144-156.
- Halliday, Fred  
2010 “‘Orientalism’ and Its Critics,” *British Journal of Middle Eastern Studies* 20(2): 145-163.
- Irwin, Robert  
2007 “Edward Said and ‘Orientalism,’”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3(20): 3-4.
- Richardson, Michael  
1990 “Enough Said: Reflections on Orientalism,” *Anthropology Today* 6(4): 16-19.
- Ryckmans, Pierre  
1984 “Orientalism and Sinology,” *Asian Studies Review* 7(3): 18-20.
- Sax, William S.  
1998 “The Hall of Mirrors: Orientalism, Anthropology, and the Other,” *American Anthropologist* 100(2): 292-301.
- Thomas, Nicholas  
1991 “Anthropology and Orientalism,” *Anthropology Today* 7(2): 4-7.

〈자료〉

- 경기일보 2014년 4월 7일, “학원가도 색안경, 피부색에 가려진 그들의 진심”(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834).
- 경향신문 2013년 12월 26일, “영어 강사 구인 때 ‘백인만’, 인종차별 못 고친 한국사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60600035&code=94040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4년 10월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일요신문 2014년 2월 18일, “외국인 강사 채용, 무엇이 문제인가”(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1491).

중앙일보 2014년 11월 23일, “서울 초등학교, 흑인이란 이유로 교사 채용 거절했다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502967&cloc=olink|article|default).

파이낸셜뉴스 2014년 11월 19일, “한국 영어 학원, 흑인 강사 ‘인종’이유로 면접 취소”(http://www.fnnews.com/news/201411191452253041).

〈Key concepts〉: Orientalism, native English instructor, sense of one's place, politics of identity, distinction

## Westerners' Mechanism and Utilization of Orientalism

Kim, Ji Hye\*

This study examines perception and mechanism of 'Orientalism' created by Westerners living in Jeonju. Through critical and experiential analysis, it also verifies Said's "Orientalism", the most influential theory explaining the ties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This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it investigates the native English instructors' previous image of 'the East' constructed before their transnational movement. Second, it explores any change in their idea about 'the East' after their stay. Finally, it examines the ways the native English speakers utilize their Orientalism. In the end, it concludes that the native instructors are inevitably bound by the notion of Orientalism. After examining their motivation and preparation process of coming to Korea as well as their life afterwards, I found an evident dichotomy of the West and the East in their thoughts. Despite the presence of the dichotomy,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wever, they are unable to precisely understand and regularly practice Orientalism. What they experience is changing Orientalism in their new and unfamiliar environment. In addition, they strategically utilize the notion to maintain their identity and deal with conflicts. Thus Orientalism is not an absolute concept consistently affecting Westerners' perception, but is a variable, either reinforced or diminished depending on situations.